



2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경기, KIA가 정규시즌 광주 홈 마지막 경기를 6-0으로 이긴 뒤 기념구를 관중들에게 던져주고 있다.(사진 왼쪽) 2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리그 한화 이글스 대 LG 트윈스의 경기, LG가 2대1로 패한 후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프로야구 KIA · LG, 팀 운명 전 남은 경기에 '초긴장'

시즌 막판까지 순위경쟁 치열

KIA, 많은 경기 이기고 두산 패배 바라보아야 패배한 LG,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 희박

2017 프로야구가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에이스 양현종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6-0으로 승리했다.

시즌 83승1무55패를 기록한 KIA는 두산 베어스(82승9무55패)를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다.

KIA는 시즌 내내 1위를 달렸지만, 시즌 막판 극도의 부진으로 두산에 공동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불편의 부진과 타선의 엇박자가 원인이었다.

현재 5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KIA의 매직넘버는 5이다.

현재 6연승 중인 두산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단 한 경기도 방심할 수 없다. 최대한 많은 경기를 이기고, 두산의 패배를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KIA는 28일부터 한화 이글스와의 대전 원정 2연전, 10월1일부터 kt 위즈와의 수원 원정 3연전을 끝으로 시즌을 마친다.

하위권과의 경기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KIA는 올해 한화를 상대로 9승5패, kt를 상대로 8승5패를 기록했다.

전날 KIA에 패한 LG의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2년 연속 '가을야구'를 눈앞에 뒀지만, 시즌 막판 부진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LG(67승3무69패)는 현재 7위에 머물러있고, 6위 넥센 히어로즈(69승2무70패)는 이미 포스트시즌에서 탈락했다.

LG의 트레이닝버너는 1이다.

LG가 남은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5위 SK 와이번스(73승1무67패)가 3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그대로 탈락이다.

이미 자력으로는 포스트시즌이 어렵다.

LG의 팀 방어율은 10개 구단 중 1위(4.27)지만, 타선의 응집력 부족, 거포 부재로 인해 포스트시즌 진출 탈락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지난 14, 15, 19일 최하위 kt에 당했던 패배가 치명적이었다.

최근 11경기에서 3승8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SK는 저멀리 달아났다.

LG는 28일 수원에서 kt와 맞붙고, 29일 잠실구장에서 1위 탈환을 노리는 두산과 맞대결을 펼친다.

30일부터 삼성 라이온즈와의 잠실 2연전, 10월3일 사직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시즌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김민근 기자

추신수, 3경기 만에 안타... 텍사스, PS 진출은 좌절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5)가 3경기 만에 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우익수 겸 2번타자로 선발출전, 2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던 추신수는 3경기 만에 안타를 생산했다. 시즌 타율은 0.262로 조금 올랐다.

추신수는 0-4로 끌려가던 1회말 무사 1루에서 볼넷을 골라내 득점을 견인했다.

3회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6회 휴스턴 선발 델러스 카이클을 상대로 좌전안타를 때렸다.

무사 1루를 만들었지만, 후속 타선이 터지지 않아 득점에 실패했다.

이날 텍사스는 무려 18안타를 내줘 3-14로 패했다.

5연패를 당한 텍사스는 시즌 76승81패를 기록했다.

잔여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포스트시즌 진출도 좌절됐다.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벌어진 워싱턴 내셔널



스와의 홈경기에 대타로 출전, 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김민근 기자

'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아포엘 꺾고 2연승

손흥민(토트넘)이 2017~2018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경기 연속 골 도전에 실패했지만 토트넘의 2연승을 도왔다.

손흥민은 27일(한국시간) 키프로스 니코시아의 GSP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포엘FC(키프로스)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지난 14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손흥민은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리 알라리 등이 결정했지만 해리 케인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원정에서 약체 아포엘을 가볍게 제압했다.

2연승을 달린 토트넘(2승 승점 6)은 레알 마드리드(2승·스페인)와 H조 공동 선두에 자리해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손흥민은 지난 23일 웨스트햄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에서 결장한 덕인지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였다.

그러나 몇 차례 득점 기회를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후 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다.

선발 출전한 11명 가운데 2번째로 낮았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다.

다음달 18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다.

손흥민과 세계적인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맞대결이 큰 관심을 모은다.

호날두는 이날 도르트문트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레알 마드리드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김민근 기자



'킹스맨2' 올해 외국영화 최다 예매... 추석 극장가 장악 예고

영화 '킹스맨:골든 서클'(감독 매슈 보먼)이 올해 국내 개봉 외국영화 최다 예매량 기록을 세우며 추석 극장가 장악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킹스맨:골든 서클'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예매 관객수 29만1471명을 기록 중이다.

예매 점유율은 74.3%, 예매 매출액은 21억3200만 원이다.

7월 개봉한 '스파이더맨:홈 커밍'이 개봉일 오전 기록한 예매 관객수 24만4371명(7월5일 오전 9시30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스파이더맨:홈 커밍'은 개봉 첫 주에만 350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은 바 있다(356만명). '스파이더맨:홈 커밍'이 12세 관람가, '킹스맨:골든 서클'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어서 단

순 비교는 어렵지만, 예매량만 놓고 보면 '킹스맨:골든 서클'의 개봉 첫 주 성적은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간 예매 순위 2위를 기록 중인 내문화 주연 한국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예매 관객수는 4만5700명(예매 점유율 11.7%)이다.

이번 작품은 2015년 개봉한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의 후속편이다.

영화는 당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612만명을 끌어모아 큰 화제를 모았다.

전 세계 흥행 수익은 4억1400만 달러에 달했다.

영화는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매출액 2억8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두 번째로 많은 4690만 달러(전체 약 16%)였



다(1위 중국 7470만 달러). '킹스맨:골든 서클'은 킹스맨 본부가 세계 범죄 조직 골든 서클에 의해 파괴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테런 에저튼·폴린 퍼스·마크 스트롱이 전작에 이어 출연하고, 줄리언 무어·할리 베리·채닝 테이텀·제프 브리지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총출동 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